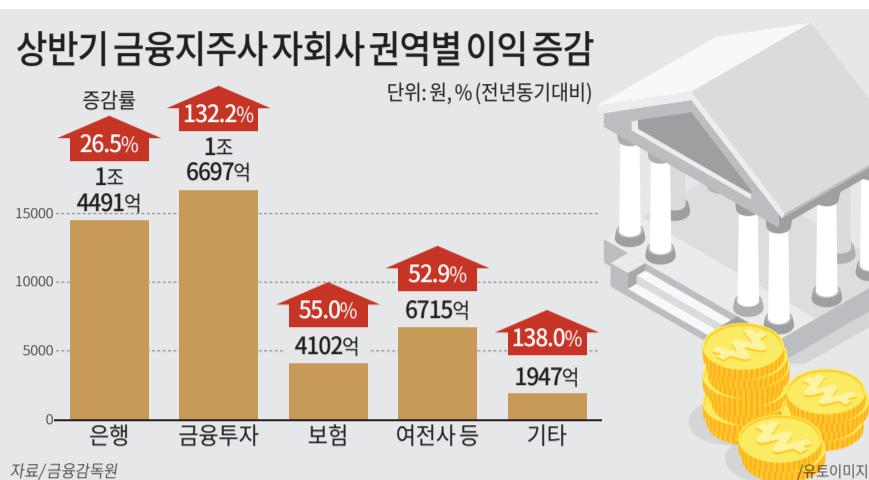


# 빚투·영끌 덕본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50% 이상 ‘껑충’

대손충당금 적립 따른 기저효과 등  
금융지주 10곳 연결 당기순익 11조  
전년 동기 대비 순익 50.3% 증가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비은행 부문 모두 이익  
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순익이  
크게 증가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  
반기 금융지주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상반기 KB금융·신한금융·농협금융  
·우리금융·하나금융·BNK금융·DGB  
금융·JB금융·한국금융·메리츠금융 등  
전체 금융지주사 10곳의 연결당기순  
이익은 11조4671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6320억원) 대비 50.3%(3조835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부문의 경우  
이자이익 확대, 전년도 대손충당금 적  
립 및 사모펀드 보상 관련 비용 등으로  
(7조6320억원) 대비 50.3%(3조835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금융투자 부문은 증시활황에 따른 수수료수익 확대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26.5%(1조4491  
억원), 금융투자가 132.2%(1조6697억  
원), 보험 55.0%(4102억원), 여전사 52.9%(6715억원) 등 모든 부분에서 증  
가했다. 자회사 권역별 이익 비중은 은  
행이 52.1%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9.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금융  
투자부문이 22.1%를 기록하며 전년 동  
기 대비 7.9%포인트 증가했다. 여전  
사, 보험사는 각각 14.6%, 8.7%를 차지  
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금융지주의 6월 말 기준 연결총  
자산은 3087조원으로 전년 말(2946조  
원)보다 4.8% 늘었다. 6월 말 금융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비율은  
각각 15.55%, 14.19%, 12.73%로 전  
년 보다 0.92%포인트, 1.00%포인  
트, 0.80%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금융지주의 부채비율은  
28.29%로 전년 말(28.87%) 대비 0.  
58%포인트 감소했다. 레버리지비율은  
115.31%로 전년 말(118.54%) 대비 3.  
23%포인트 떨어졌다.

6월 말 전체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  
사의 자회사 등 소속회사 수는 277개사  
로 전년 말 대비 13개 증가했다. 지주별  
로는 ▲신한지주 4개 ▲한국지주 6개  
▲KB지주 3개 등 총 18개사 편입됐으  
며, 한국지주 뉴욕현지법인 등 5개사를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정책지  
원 종료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불  
확실성에 대비하도록 적정 수준의 대손  
충당금 적립, 자본화충 및 내부유보 등  
손실흡수력 제고를 지도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보험사 대출 5.2조 ↑… 가계·기업 모두 증가

대·중소 보험사 대출 수요 늘어  
6월 보험사 대출 잔액 260.3조

올 2분기 보험회사들이 가계대출뿐  
아니라 대·중소기업의 보험사 대출수  
요가 늘어나면서 전체 대출을 5조2000  
억원 상당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기준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대출  
잔액은 26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  
비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26조6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7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늘었다. 기업대  
출은 3월에 비해 3조4000억원 늘어난  
13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대출은 ▲대기업 47조1000  
억원 ▲중소기업 86조4000억원 ▲부동  
산PF 39조원 등 모두 3월에 비해 늘어  
났다.

가계대출에선 주택담보대출이 48조  
8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다. 더불어 보험계약대출, 신용  
대출, 기타대출에서 각각 전분기 보다  
40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늘린 것  
으로 집계됐다.

6월 기준 대출채권 연체율은 0.17%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특별계정 포함)〉

구 분	2020년 3월말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말	2021년 3월말	2021년 6월말	전분기말比	전년동기比*
대출전체 (총여신)	238.4	240.9	245.8	253.0	255.1	260.3	5.2	2.7
가계대출	121.3	120.1	121.6	123.1	124.9	126.6	1.7	2.9
(보험계약)	65.0	63.1	62.9	63.5	63.4	63.8	0.4	2.3
(주택담보)	44.1	44.8	46.4	47.2	48.8	49.8	1.0	0.3
(신용)	7.3	6.9	6.8	6.8	6.8	6.9	0.1	0.5
(기타)	4.9	5.3	5.5	5.6	5.9	6.1	0.2	△0.2
기업대출	117.0	120.6	124.0	129.7	130.1	133.5	3.4	△0.2
(대기업)	42.6	44.5	45.0	47.3	45.5	47.1	1.6	△0.3
(중소기업)	74.4	76.1	79.0	82.4	84.6	86.4	1.8	0.1
* 2021.2분기중 증감액(2021.6말 잔액-2021.3말 잔액) - 2020.2분기중 증감액(2020.6말 잔액-2020.3말 잔액)								
※ 부동산PF	31.5	33.6	34.9	36.4	37.0	39.0	2.0	△0.1

를 기록했다. 대출잔액은 증가했지만  
연체율은 3월(0.18%)보다 0.01%포인  
트 낮아졌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  
체율은 각각 0.29%와 0.10%를 기록했  
다. 부실채권 비율은 0.14%로 3월에 비  
해 0.03%포인트 떨어졌다. 부실채권  
비율 역시 가계대출 0.15%, 기업대출  
0.13%로 전분기보다 각각 0.01%포인  
트, 0.04%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이  
행상황 등 점검을 강화하고 연체율 등  
대출건전성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  
태 지속에 대응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예  
정”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 NH농협銀, 내달 예탁원과 ‘벤처넷’ 오픈

벤처펀드 백오피스 디지털 플랫폼

NH농협은행이 오는 10월 중 한국예  
탁결제원과 벤처펀드 지원 디지털 플랫  
폼을 동시 오픈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한국예탁결제  
원과 ‘벤처펀드 백오피스 디지털금융 혁  
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벤처펀드 시장은 정부의 중소·벤처  
기업 육성 시책과 업계의 혁신 노력에 힘입어  
전년말 기준 45조원 규모로 성  
장했으나 이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업무  
는 상당 부분 팩스 등을 이용한 수작업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벤처기업과 투

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2년여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중에 벤처펀드 백  
오피스 디지털 플랫폼인 ‘벤처넷’을 오픈  
할 예정이며, NH농협은행도 벤처넷에  
연계되는 ‘증권수탁 차세대시스템’을  
동시 오픈하기로 했다. 양사는 벤처넷  
조기 정착을 위한 흥보와 지속적인 디  
지털 인프라고도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정부의 벤처  
기업 육성 노력에 힘입어 벤처펀드 시  
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권준학 NH농협은행장(오른쪽)이 지난 6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의 벤처펀드 수탁 1위 경험과 한국예탁  
결제원의 펀드넷 관리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해 벤처펀드 시장의 디지털화를 선  
도하고 함께 지속 발전하도록 협력 하  
겠다”고 밝혔다. /권소완 기자 think@

## 나눔문화 확산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

KB국민銀, 사후 공익법인에 기부

기부·상속 종합 컨설팅으로 기부자의  
재산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 설  
계 솔루션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위대한유  
산 기부신탁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지만 현재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기  
부를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준비했다”  
며 “기부신탁 활용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에 출시된 KB위대한  
유산은 고객의 훌륭한 업적으로 쌓인  
가치와 유지를 의미하며, 고객의 종합  
자산관리와 세대 간 자산의 안정적 이  
전을 위한 통합 상속설계 브랜드다.

/이영석 기자